



도자기의 곡선에 회화의 역동성을 더하다

도예가 황종례

황종례 작가는 대한민국 1세대 여성 도예가로 꼽힌다. 곡선의 도자기에 역동적인 회화를 접목해 그녀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 왔다. 손수 흙을 만지고 유약을 개발하며 가마를 관리해온 그녀의 도자기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느끼게 한다.

고즈넉한 자연에서 만나는 도자의 세계

덕양구 벽제동에 가면 황종례 작가(96세)의 이름을 건 도예연구소가 있다. 단층으로 조성된 연구소에 들어서면 그녀의 작품은 물론, 전통 도예를 가업으로 이어온 아버지 故 황인춘 선생의 청자, 오빠 故 황종구 작가의 분청도 만나볼 수 있다. 도예연구소 옆에는 그녀가 오래도록 작품을 빚고 그려온 작업실이 자리한다. 벽제동에 자리 잡은 지도 어느덧 50년. 1972년 이곳에 가마를 만들 때만 해도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다.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은빛바람>은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그 덕에 드넓은 터에 도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마를 갖출 수 있었다. 그녀가 수십 년 동안 흙을 만지며 수양해온 가마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변에 아파트와 상권이 들어선 지금은 현대식 가마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고양특례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통식 가마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대단하다.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하는 꿈

황종례 작가는 분청사기의 현대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도자기 표면에 그린 회화는 전통 기법인 '귀얄문'을 복원해 새겼다.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초에 널리 사용된 '귀얄'은 풀이나 옷을 칠할 때 돼지털이나 말총 등을 사용해서 만든 솔을 가리키며, '귀얄문'은 귀얄로 그려낸 무늬다. 그릇의 형태에 맞게 여러 차례 붓질해 그려낸 귀얄문은 도자기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도자기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황 작가는 "옛사람의 순수한 작업에서 회화적 느낌을 발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려 했다"고 전한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은 황종례 작가의 발자취를 통해서도 느껴진다. 영국 대영박물관과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등을 비롯한 각국 미술관에서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니 말이다. 어느덧 백수(白壽, 99세)를 향해 가는 작가의 남은 바람은 자신의 유명세가 아닌 한국 도예의 세계화다. 한국 도예사의 중요한 축을 맡아온 작가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작가 이력

- 2022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 명예교수
- 2020 — 제65회 대한민국예술원상 미술부문
- 2009 — 제14회 명원문화상 문화학술상
- 1998 — 옥관문화훈장
- 1990 — 제22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미술부문

